

к с і

松江의 交遊詩 연구

박영주*

<차 례>

1. 머리말
2. 스승들의 감화와 교유시
3.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유시
4. 정치무대 동반자들과의 교유시
5.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6. 맺음말

1. 머리말

전통시대 선비사회에 있어서의 교유는 당대의 사회적 정황과 문화적 풍토 및 인간적 유대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의 각별한 의미가 있다. 넓게는 당대 지식인들 사이의 인간적인 교분과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좁게는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관건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유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연배 사이의 사귀음을 뜻하지만, 마음이나 감정이 통하는 사이에서의 교분 혹은 情誼까지를 두루 포괄하는 뜻을 지니기도 하기에, 나이나 신분을 초월한 인간관계의 사귀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통시대 문인들 사이의 교유에는 으레 한시나 서간을 주고받는

* 강릉대학교

일이 뒤따랐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교유의 내밀한 실상과 정신적 영향관계 및 정서적 교감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인물의 품성과 기질로부터 이념·가치관 등에 결부된 지향의식의 단면들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인물 됴됨이와 함께 작품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하나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交遊詩는 작가의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을 두루 아우르고 있으며, 그가 헤쳐나간 삶의 역정에 관여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긴요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松江 鄭澈(1536~1593)의 한시는 그가 창작한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하면서도, 널리 주목을 받아 온 국문시가에 비해 여전히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의 한시는 『松江全集』¹⁾과 여러 문헌에 산견되는 작품들을 포함하여 모두 763수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품의 내용과 제재를 고려하여 이를 유형별로 나눈 연구에 따르면, 교유시가 307수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²⁾ 따라서 그가 이루어 나간 교유의 폭과 깊이는 접어두더라도, 송강의 개성에 결부된 인물 됴됨이나 생애적 궤적 및 문학세계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 그의 교유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의 교유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그의 전기적 배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그가 교유한 인물과의 관계 혹은 교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유양상을 살피거나, 그의 한시 전반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면서

1) 『松江全集』(影印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4. 송강의 詩文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관본으로 된 『松江原集』·『松江續集』·『松江別集』과 필사본으로 된 『松江集拾遺』가 전해 오는데, 『松江全集』(影印本)은 이들 모두를 묶어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2) 최태호의 연구에 따르면 송강의 한시 작품은 위의 『松江全集』에 756수(이 가운데에는 중복 수록된 것 15수, 불완전한 작품 13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은 聯句 3수가 포함되어 있음), 여타 문헌에 7수가 전하여 도합 763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 763수와 賦 4편을 대상으로 내용적 유형을 분류하여, 交遊詩 307수, 述懷詩 133수, 樓亭詩 120수, 景物詩 81수, 憂國詩 50수, 嗜酒詩 41수, 戀君詩 35수로 집계한 바 있다.(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51~58쪽 참조)

교유시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특징적 단면들을 살피는 데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³⁾ 다만 유형분류와 함께 교유시에 속하는 작품들의 내용을 준거로 그 하위유형들을 설정하고 특징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예가 있으나⁴⁾, 송강의 교유시에 대한 작품론적 측면을 아우른 논의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송강이 동시대 인물들과 교유한 내용이 담긴 작품들에는 그의 성장 과정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들과의 인연과 감화,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들과의 情誼와 교감양상, 정치적 노선을 같이했던 이들과의 교분과 의리,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의 왕래와 우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본고는 송강이 교유했던 이같은 인물들의 층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크게 네 갈래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의 품성과 기질에 바탕을 둔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헤쳐나간 삶의 역정을 살펴봄으로써, 송강이라는 조선중기 사대부 문인의 인물됨됨이와 작품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하는 적절한 거점의 하나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스승들의 감화와 교유시

송강을 송강이게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를 따라 본래의 고향도 아닌 남도의 담양 창평에 갇혀 살게 된 인연과,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스승들로부터 감화를 받으면서 자신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그

3) 그 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대표하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논저들을 들 수 있다. 김갑기, 『松江 鄭澈 研究』, 이우출판사, 1985 / 유예근, 『松江 鄭澈 文學 研究』,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 研究』, 민문고, 1989 / 이은봉, 『松江 文學의 傳記의 背景 研究』, 『松江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 박준규,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 『古詩歌研究』2·3합집, 한국고시기문학회, 1995 / 김진옥,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4) 최태호, 앞의 『松江文學論考』, 58~72쪽 참조.

의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담양 창평과 스승들의 감화야말로 정신적 정서적 귀속처로서 그의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강의 새로운 인생은 沙村 金允愷(1501~1572)와의 만남과 교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의 만남과 교유를 통해 비로소 배움의 길이 열리고, 배필을 만나 성인의 예를 올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송강에게 있어서 사촌은 첫 스승이자 은인이다.

사촌의 자세한 내력이나 생존 당시의 행적은 알려진 바 드물다. 따라서 송강이 그로부터 수학한 내용이나 영향의 실상 역시 구체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사촌이라는 존재는 분명 송강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스승 가운데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청년시절 송강의 수학과 교유는 바로 사촌이 거처하던 環碧堂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次環碧堂韻>⁵⁾ <환벽당 운을 따서 짓다>

| | |
|---------|--------------------------|
| 一道飛泉兩岸間 | 한 줄기 샘 두 언덕 사이로 날아 떨어지고, |
| 採菱歌起蓼花灣 | 여뀌꽃 핀 물굽이엔 연 캐는 노래 한창일래. |
| 山翁醉倒溪邊石 | 시냇가 반석 위에 산 늙은이 취해 누우니, |
| 不管沙鷗自往還 | 모래밭 갈매기 소리 없이 오고 가네. |

술술 우거진 두 언덕 사이로 날아 떨어지는 한 줄기 ‘샘물’, 시냇물 가장 자리로 붉게 핀 ‘여뀌꽃’, 연인을 부르는듯 때맞춰 들려오는 ‘연 캐는 노래’로부터, 선명한 색채감과 함께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를 배경으로 시냇가 반석 위에 취해 누워 있는 ‘산 늙은이’. 느껴온 전원의 흥에 취하고, 더불어 기울인 몇 잔의 술에 취한 것이리라. 그 맑은 흥취를 깨뜨릴세라, 무시로 나니는 모래밭 갈매기조차 ‘소리 없이’ 오고 간다.

운치있는 환벽당 주변의 풍광과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촌의 유유자적한

5) 『松江原集』 卷1

삶을 노래한 시다. 맑고 한가로운 자연의 경물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을 벗삼아 생활하는 사촌이 그와 같은 자연의 심성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일깨우는 듯하다. 그 호젓하면서도 운치있는 정경은 탈속의 정서가 깃든 한 폭의 文人畫를 연상케 한다. 사촌의 삶을 기리는 송강의 정이 담담하게 녹아 있는 예라 할 것이다.

사촌과의 만남과 교류 이후 송강은 본격 수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의 생애에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자 품성 및 가치관이 틀잡히기 시작하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10년여를, 당대의 석학들과 뛰어난 문인들 사이에서 혹은 스승으로 혹은 벗으로 교류하며 대가의 풍모를 갖추는 것이다. 愼獨齋 金集(1574~1656)이 송강의 「行狀」에서, “공이 조금 자라자 김하서 인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기고봉 대승을 좇아 배웠으며, 이미 또한 우계 성선생과 율곡 이선생과 더불어 친교를 정하였으니, 그 마음 씩씩이의 바름과 행김의 고결함이 대개 연원이 있었던 것이다.”⁶⁾라고 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송강의 학문적 스승으로는 단연 河西 金麟厚(1510~1560)와 高峯 奇大升(1527~1572)을 꼽는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하서와 고봉은 당대의 석학들이다. 송강은 이들에게서 학문적 감화를 받은 것은 물론, 이들의 인품과 생활태도까지를 귀감으로 삼을 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평생을 두고 이들을 존경하게 된다. 沙溪 金長生(1548~1631)이 송강의 「行錄」에서, “공이 좀 자란 뒤에 기고봉 대승을 좇아 『近思錄』 등 책을 배워 학문의 방향을 알았고, 또 김하서 인후의 문하에 출입하여 항상 그의 인품을 사모하고 큰 절개를 기리며, 그 출처의 바름이 근세의 어진 선비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⁷⁾라고 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청년시절의 성장기에 이들

6) 公稍長 東脩金河西仁厚之門 又從奇高峰大升問學 既又與牛溪成先生 栗谷李先生定交 其趨行之正 制行之高 蓋有淵源矣：「行狀」, 『松江別集』 卷5

7) 公稍長 從奇高峰大升學近思錄等書 以知向方 又出入金河西仁厚之門 常慕其爲人稱道大節 以爲出處之正 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行錄」, 『松江別集』 卷4

석학에게서 수학하게 된 것은 송강으로서는 큰 행운이기도 했다.

호남 유학의 祖宗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인 하서는 향리 장성에서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詩文에 능하여 10여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학문과 관련된 저술은 많지 않다. 특히 仁宗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인해, 그는 매년 7월 인종의 忌日이 되면 술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한 잔 마시고 한 번 곡하다가, 취하면 소리 내어 크게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하서는 후대 사람들에게 ‘학문과 절의와 문장에 있어서 이를 다 갖춘 사람은 김하서 뿐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송강은 이와 같은 하서로부터 선이 굵은 선비의 절개와 기품을 배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송강 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한 戀君의 정은, 아마도 하서가 인종에게 그랬던 것에 영향을 입어, 자신은 이를 선조에게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송강의 시문 가운데에는 하서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글들이 적지 않다. 당시 하서가 기거하던 장성의 百花亭으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던 일을 회상하며 “마음깊이 사모하며 일생을 두고 배우려 했는데,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은 아직도 배우지를 못하였다.”⁸⁾라는 그의 「日記」 가운데 한 편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서와 송강은 사제 간의 정분이 각별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서가 일찍이 송강을 전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구를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다.

秋雲低薄暮 옅은 가을 구름 나직히 드리운 저녁,
別意醉中生 취중에 더하누나 이별의 아쉬운 정.

그러자 송강은 다음의 두 구를 역시 즉석에서 지어 스승에게 화답하였다.

8) 心切慕之 一生願學 而若其不離繩墨之中 則未之學也 : 「日記」, 『松江別集』 卷1 雜著

前路崎嶇甚 험한 앞길 구불구불 아득도 한데,
相留多少情 이리도 애달파라 서로 두고 머무는 정.

위 <聯句>⁹⁾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 받은 시면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정감이 넘친다. 스승은 담담하면서도 품위 있게 제자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전하고, 제자는 또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들면서 스승을 향해 연연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듯하다.

송강은 하서에게서 특히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出處의 바른 도리를 배운다. 하서 자신이 이 방면의 귀감이었던 만큼, 송강의 마음 속에는 스승의 출처야말로 유가 사대부의 표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깊숙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다음과 같은 5언절구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懷河西> <하서를 그리며>

東方無出處 동방에는 출처 잘한 이 없더니,
獨有湛齋翁 홀로 담재옹만 그리하셨네.
年年七月日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이 되면,
痛哭萬山中 통곡 소리 온 산에 가득하였네.

역대 어떤 선비보다도 ‘담재옹’이 유독 ‘출처’의 귀감임을 말하면서, 이를 본받고자 하는 뜻을 행간에 담고 있다. 여기에서 ‘담재’는 하서의 또다른 호다. 그리고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은 하서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인종의 기일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하서는 이 날이 되면 술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 취하면 크게 소리내어 곡하였다고 하는데, 그 충정과 절의는 당시 유가 사대부의 이념에 비추어 하나의 표본일 시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송강은 하서의 「祭文」¹⁰⁾에서도 그 출처의 바름을 기리고 고결한 덕을 흠모해 마지 않는다.

송강은 이러한 하서의 학덕과 인품 외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을

9) 『松江原集』 卷1

10) 「祭金河西先生文」, 『松江續集』 卷2 참조.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서로 말하면 시문에 있어서도 당대에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역대 문인들이 시적 정서의 근원으로 삼아온 『詩經』을 수없이 독과하여, 그 시정신을 깊이 터득했다. 그런가 하면 「離騷」를 위시한 『楚辭』에 남다른 애착과 감동을 느껴, 이를 항상 애송하면서 憂國衷情의 정신에 철저하고자 했다. 우국충정에 입각한 연군의 정을 간절히 노래한 송강의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제목 뿐만 아니라 그 시상이나 정서 형상화 방식 면에서 <이소>의 영향을 입은 바 적지 않다.¹¹⁾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송강이 <이소> 등의 『초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스승 하서의 가르침이 깊은 영향을 끼쳤던 데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송강의 또 다른 학문적 스승인 高峯은 조선조를 빛낸 큰 학자로서, 철학은 물론 문학에도 이름을 떨친 선비다. 호남의 큰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관심사를 논하던 젊은 시절, 고봉은 선학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바 많았다고 한다. 특히 스승뻘이 되는 退溪 李滉(1501~1570)과는 32살 때인 1558년 이후 12년에 걸쳐 학문적 대화를 담은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1559년에서 1566년까지 무려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람의 심성을 주제로 한 四端七情理氣論은 유학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강은 이러한 고봉을 스승으로 섬기며 예의 『근사록』 등을 배운다. 그리하여 스승의 탁월한 학덕과 고매한 인격을 본받고 익히면서, 점차 인생과 학문의 방향을 깨우친다. 고봉 또한 송강의 범상치 않은 자질과 맑은 품성을 일찍부터 간파하여, 자신의 문하에 들어와 수학하던 어느 날 산에 올라 水石이 특이하게 맑고 깨끗한 경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이가 “세간 사람으로서 인품이 이에 비길 만한 이가 있을까요?”하고 물었을 때, “오직 정철이 여기에 견줄 만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¹²⁾ 다른 누구도 아닌 고봉과

11)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영주, 「西浦가 송강가사를 ‘我東之離騷’라고 한 것에 대하여」, 『泮橋語文研究』 장간호(반교어문학회, 1988)를 참조.

12) 高峯嘗遊山 遇一異境水石清絕處 或曰 世間人品 有可以比此者乎 高峯曰 惟鄭某可以當之

같은 스승으로부터 송강은 일찍이 이와 같은 품성과 자질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송강은 고봉으로부터 특히 선비가 평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의 바른 도리를 배운다. 그렇기에 고봉이 세상을 뒀을 때, 이를 가르치고 몸소 실행에 옮기던 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애통해 한다.¹³⁾ 고봉이 세상을 뜬 해에 송강은 37살이었다. 그러니 이미 벼슬길에 나아가 유가 사대부가 지녀야 할 올바른 심성과 도리가 무엇인지 절감할 무렵이기도 했을 터다.

하서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송강은 고봉에게서 학문 뿐만 아니라 문학 방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송강의 시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인간 본연의 성품보다는 기질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향은 인간의 심성을 情과 氣로써 파악하고자 한 고봉의 영향이 컸던 데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봉 역시 일찍부터 시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일컬어졌음을 감안할 때, 송강 문학의 사상적 기반은 고봉에 의해 다져진 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고봉의 7언절구 한 수를 보기로 하겠다.

<偶題>¹⁴⁾

<우연히 짓다>

| | |
|---------|------------------------|
| 庭前小草挾風薰 | 뜰 앞 작은 풀꽃 바람 향기를 머금으니, |
| 殘夢初醒午酒醺 | 꿈결인듯 비로소 취한 낮술이 깨이네. |
| 深院落花春晝永 | 깊은 정원에 꽃잎 날리고 봄날은 긴데, |
| 隔簾蜂蝶晚紛紛 | 주렴 너머로 벌 나비 늦도록 분분하네. |

봄시름에 겨워 낮술을 한 잔 하고 얼핏 잠이 들었나보다. 봄바람이 뜰 앞에 돌아난 풀꽃을 실랑거리며 스쳐 지나가자, 그 신선한 향기가 은은하게

: 「年譜」, 『松江別集』 卷2

13) 「祭奇高峯先生文」, 『松江續集』 卷2 참조.

14) 『高峯集』 卷1 詩

코끝에 스민다. 꿈결인가 싶어 살짝 눈을 뜨니, 비로소 낮술이 깨인다. 몸을 일으켜 트랙을 둘러본다. 화창한 봄날 오후, 해는 아직도 길다. 정원 깊숙한 곳에서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주렴 너머 꽃들 사이에서는 벌·나비가 늦도록 어지럽게 춤춘다.

이 시는 아늑하고 정겨운 어느 봄날 오후의 정경을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다. 봄의 정경은 으레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물상들로 인해 감정이 넘쳐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시는 그러한 물상들을 담담하게 형상화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된 봄의 흥취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봄날 특유의 생기가 있다. ‘풀꽃 향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인해 ‘꿈결인듯 비로소 낮술에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은 그 담담한 흥취와 생기를 대변한다. 또, ‘깊은 정원에 날리는 꽃잎’과 ‘주렴 너머로 늦도록 어지럽게 노니는 벌·나비’에서의 ‘깊은’과 ‘주렴 너머’는 격정적 정서에 휩쓸리지 않는 작자의 절제된 감성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화려하거나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조화로운 이법과 일상적 삶의 단면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며 탁월한 비평가의 한 사람인 玄黙子 洪萬宗 (1643~1725)은 그의 『詩評補遺』에서, “말을 짓는 솜씨가 참으로 자연스럽고, 각각의 표현들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性情의 바름을 시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라고 한 바 있다. 정곡을 찌른 평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송강의 작품을 보면, 그 표현 기법이나 시적 형상화 방식 면에서, 위에서 인용한 고봉의 시와 두루 상통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언절구로 된 <息影亭雜詠十首> 가운데 한 수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白沙睡鴨>¹⁶⁾ <백사장에 즐고 있는 물오리>

15) 作語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詩評補遺』下篇

16) 『松江原集』卷1

風搖羽不整 바람 일자 사르르 깃이 너울거리고,
 日照色增妍 햇빛에 어리는 색채 더욱 고와라.
 纔罷水中浴 무자맥질 마치고 나오자 마자,
 偶成沙上眠 백사장 파사로워 조숙조숙 즐고 있네.

그리 넓지 않은 백사장 가장자리로 푸릇푸릇 여뀌풀꽃이 돋아 있음직한 계절이다. 쉬엄쉬엄 강물이 흐른다. 그런 정경 사이로 무엇인가 가볍게 움직인다. 바람이 일자 사르르 깃이 너울거리고, 그 깃에 햇빛이 어리면서 더욱 고운 색채를 띠는 물오리. 이리저리 수면 위를 다니며 자맥질을 하더니만, 따스한 햇볕이 스민 백사장으로 나오자마자, 고개 웅크리고 꾸벅꾸벅 즐고 있다.

이 시 역시 어느 따스한 봄날의 정경을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다. 화려한 물상이 등장하지도, 특별히 눈에 떨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생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를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거기에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생기가 있는가 하면 아늑함이 있다. 송강 특유의 감각적 묘사와 신선한 색채감이 그것을 북돋운다. 그리하여 주변 물상들과 더불어 물오리의 생태에서 봄의 흥취, 나아가 자연의 조화로우름을 저절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고봉은 당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진 朱子의 <武夷權歌>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시는 “외부 사물로부터 촉발된 감정을 바탕으로 가슴 속의 흥취를 풀어내는”¹⁷⁾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편 바 있다.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으로부터 촉발된 감흥을 근간으로 내면의 사고 혹은 정서를 형상화함으로써, 단순한 흥취 이상의 감격과 정신이 활짝 열리어 퍼지는 暢神의 즐거움까지를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두 시편들이 곧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는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송강은 고봉으로부터 학문의 깊이와 선비의 도리를 다진 것은 물론, 이 같은 예로 미루어 그의 시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17) 因物起興 以寫胸中之趣 : <別紙武夷權歌和韻>, 『高峯集』 高峯退溪往復書 卷1

으로 보인다.¹⁸⁾

한편, 하서·고봉과의 교유가 송강으로 하여금 학문과 사상의 기반을 다지면서 품성과 자질을 가다듬어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두루 갖추게 했다면, 그의 문학적 소양과 자질을 보다 직접적으로 길러 발현시키게 한 스승으로는 侁仰亭 宋純(1493~1583)과 石川 林億齡(1496~1568)을 들 수 있다. 물론 당대의 수학 풍토라는 것이 문학·역사·철학을 두루 포괄한 전인적 교양을 함께 익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스승이 문학에, 문학적 스승이 학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사람을 송강의 문학적 스승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국문시가 뿐만 아니라 한시에도 탁월한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면양정으로부터는 국문시가를, 석천으로부터는 한시를 특히 세련되게 배워 익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양정은 조선시대 일대를 풍미했던 자연예찬의 詩風—江湖歌道の 선구자로서, 한시뿐만 아니라 국문시가에 능하여 호남시단의 큰 맥을 이룬 인물이다. 면양정은 당시로서 매우 드물게 60여 년 동안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원만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스승의 높은 덕과 인품에 대한 송강의 흠모의 정은 그를 추모하는 「祭文」¹⁹⁾에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 면양정에서 벌어진 스승의 回榜宴에서 송강이 가마를 메지고 선도했던 일화²⁰⁾는 대대로 미담이 되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송강은 면양정으로부터 특히 시문을 수학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星山別曲>은 작품의 전반적 짜임새나 내용상의 상통점 외에, 시적 정조와 표현상의 특징 면에서 스승의 <侁仰亭歌>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더욱이 주변 경관을 묘사하는 수법과 사대부적 풍류와 흥취를 노래한 점에 있어

18) 물론 인용한 송강의 <白沙睡鴨>은 다음 장에서 살필 息影亭四仙들과의 교유시 가운데 한 수다. 그러나 작품론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따진다면 이와 같은 고봉과의 교유와 감화에 연원적으로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祭宋侁仰純文」, 『松江續集』卷2 참조.

20) 「行狀」, 『企村集』卷5 참조.

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송강의 <訓民歌> 또한 면양정의 <五倫歌>와 상통하는 점이 많고 보면, 송강의 세련된 우리말 감각이나 표현의 긴밀성이 녹아 있는 국문시가 작품들은 면양정에게서 익힌 우리말의 감성이 그 자양분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석천은 호남의 詞宗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로서, 고금 각 체의 시를 일생 동안 꾸준히 지었기에, 그의 시 전체가 곧 그의 인생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나라 李白의 시풍에 조예가 깊었는데, 그의 문하생으로서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玉峯 白光勳(1537~1582)이 “남도 땅 시문의 대가는 우리 석천 선생님 / 그 문채 그 풍류 이태백의 품모로 세.”²¹⁾라고 노래한 데 잘 나타나 있다.

송강은 석천이 담양 부사로 재임하게 된 그의 나이 23살 무렵부터 석천을 스승으로 섬기며 한시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 시에 어느 정도 눈을 뜬 무렵인 20대 초·중반의 송강에게는 이백의 품모를 지닌 석천의 화려한 시풍과 낭만적 정조가 특히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더욱이 송강 자신 풍류에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보면, 석천의 문채와 풍류는 그의 호방·활달한 기질을 시로써 형상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은 석천에게 수학하면서 특히 시인으로서의 품모와 시적 품격을 갖추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²²⁾

위에서 살핀 스승들 외에도 송강은 당대 학문과 시문으로 이름이 높던 이들에게 수학하며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식견과 자질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다져나간다. 大司成을 역임한 당대의 큰 학자요 시문에 뛰어난 인물이기도 했던 松川 梁應鼎(1519~1583)을 스승으로 섬기고 교류하면서 인격적으로 큰 감화를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송강은 스승 송천으로부터 “임석천의 문장과 절조, 이청련의 간결함과

21) 江南詞宗吾石川 文彩風流今謫仙 : <金陵記懷贈栖霞主人>, 『玉峯集』 下

22) 송강의 석천과의 교류시와 그로부터 받은 문학적 감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류시>에서 살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한다.

고상함을 지금 세상에는 짝할 만한 이가 없고, 오직 정철만이 거기에 가깝다.”²³⁾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송강의 송천에 대한 존경심과 사모의 정은 그를 추모하는 祭文에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지낼 적에, 군색하고 궁지에 빠질 때면 명량한 데로 인도하시고, 경박하고 급할 때면 서서히 완만한 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착한 것은 말씀하시되 악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한 것은 이르시되 흉한 것은 이르지 않으셨으니, 이는 천성으로 그러하셨습니다.”²⁴⁾라고 한 데 잘 나타나 있다. 다소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던 송강의 기질을 다잡아 준 스승이 곧 송천이었다 하겠는데, 송강은 그에게서 특히 선한 품성과 원만한 인격의 표본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송강이 스승으로 섬기면서 교유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이다. 송강의 학문과 문학은 그의 타고난 자질 탓도 있었겠지만, 이렇듯 풍요로운 수학과 교유의 기반 위에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열매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스승들과의 교유시 속에는, 송강 자신 그들로부터 입은 은덕과 감화가 연연한 정과 함께 잘 배어 있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적 풍격과 정조 또한 은은히 투영되어 있다 할 것이다.

3.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유시

송강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유년시절에 궁중출입을 하며 지내거나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 함경도 정평과 경상도 영일에서 생활하기도 했으며, 출사 후에는 한때 경기도 고양에 깃들어 살기도 했다.²⁵⁾ 그러나 16살이던

23) 林石川文章氣節 李靑蓮簡九雅操 今世無可與儔 獨鄭澈近之：「言行錄」, 『松川集』 卷4

24) 余有奉而周旋 迫而阨可導而宣 佻而疾可久而綿 至如言善不言惡 道吉不道凶 性能而然：「祭梁松川應鼎文」, 『松江續集』 卷2

25) 송강의 생애적 궤적에 관한 자세한 사실은 박영주, 『송강 정철 평전』(중앙M&B, 1999)

10대 중반 이후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를 따라 선조의 묘소가 있는 담양 창평으로 옮겨온 이후, 이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물러나 있을 때면 이곳에 머물면서 고뇌와 갈등을 치유하고 심신을 재충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문학 작품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었다. 그렇기에 송강에게 있어서 담양 창평은 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곳이자, 학문과 사상을 영글게 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담금질하던 텃밭이요, 수많은 절창들을 쏟아낸 창작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27살 이후, 송강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향리 창평으로 낙향한다.²⁶⁾ 당대 정치 현실의 풍파와 붕당 간의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경국제민의 사회 현실에서 벗어나 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창평의 향리생활 기간은 송강에게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갖는다. 네 차례의 낙향 모두 그가 벼슬길에 나아간 후 비로소 긴장된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실의와 역경에 처했던 시기였을망정, 문학적으로는 실로 보람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송강의 향리생활은 주로 글을 읽고 사색하거나 시를 짓는 한편, 星山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樓亭와 園林을 출입하며 거기에 모여든 당대의 쟁쟁한 문인·학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시를 주고 받으며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성산 주변의 누정과 원림들 가운데서도 그가 특히 즐겨 찾은 곳은 息影亭과 棲霞堂이었다. 이 두 곳은 거의 나란히 붙어 있는데, 모두 그와 동문수학한 棲霞 金成遠(1525~1597)과 관계가 깊다. 식영정은 서하가 자

을 참조.

26) 네 차례의 낙향 기간을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하여 정리·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차 : 40~42살(1575~1577년 · 선조 8년 10월~선조 10년 10월)
- 2차 : 44살 (1579년 · 선조 12년 8월~12월)
- 3차 : 46살 (1581년 · 선조 14년 6월~12월)
- 4차 : 50~54살(1585~1589년 · 선조 18년 8월~선조 22년 10월)

신의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어 드린 곳이고, 서하당은 바로 김성원이 사는 거처이기 때문이다. 송강과 서하가 둘도 없는知己라는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식영정에 머물렀던 석천 역시 송강의 스승이기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가 이 두 곳을 특히 자주 찾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당대 사람들은 이들 세 사람과 霽峯 高敬命(1533~1592)을 일컬어 息影亭四仙이라 하였다. 물론 서로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다. 송강을 기준으로 할 때, 제봉은 다만 3년 위의 동년배였던 셈이지만, 서하와는 동문수학한 지기 사이이기는 해도 11살의 차이가 있었으며, 스승 석천과는 무려 40살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옛부터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은다[君子以文會友]’고 했다. 이른바 지식인들의 교류는 글로써 더욱 정분이 두터워짐을 뜻하는 이 말은 식영정 4선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들 네 사람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교류하며 시문으로써 두터운 교분을 쌓았기 때문이다.

송강 당대를 위시한 중세 문인들의 시적 교류는 특히 次韻詩에서 두드러졌다. 송강이 스승인 석천과 식영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고 酬唱한 여러 편의 차운시 가운데 한 수인<환벽당 용소[環碧龍湫]>²⁷⁾라는 동일한 제목의 5언절구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 | |
|-------|-------------------------|
| 澄湫平沙浪 | 맑은 소 반지러운 모래톱에 물결 이는데, |
| 飛閣望如船 | 날아갈 듯 솟은 정자 바라보니 배이런 듯. |
| 明月吹長笛 | 밝은 달빛 사이로 피리 소리 들리니, |
| 潛蛟不得眠 | 물 아래 잠긴 용 잠 못 들어 하노라. |

| | |
|-------|---------------------|
| 危亭俯凝湛 | 맑은 소 굽어보는 높다란 정자, |
| 一上似登船 | 올라보니 배 위에 오른 듯하네. |
| 未必有神物 | 영물이야 꼭 있는 것도 아니런마는, |
| 肅然無夜眠 | 벌벌 떨려 밤이면 잠 못 이루네. |

27) 『石川集』·『松江原集』 卷1

위쪽에 인용한 작품이 석천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작품이 송강이 지은 것이다. 두 작품은 같은韻을 쓰고 있기에 소재 면에서 다소 유사한 점은 있다. 그러나 그 시적 이미지의 세계는 상당히 다르다. 석천의 시는 ‘환벽당’과 ‘용소’를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달밤의 정경과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반면, 송강의 시는 ‘환벽당’에 올라 아래로 ‘용소’를 굽어보면서, 사물을 직접 응시하면서 얻은 상념과 지극히 현실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석천의 시가 대상의 ‘관조’를 통해 그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송강의 시는 직접적인 ‘체험’을 살려 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운시의 묘미는 상대방이韻으로 사용한 글자와 똑같은 글자를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데 있다. 차운시를 지을 때면, 문인들은 좀더 새롭고 감탄할 만한 시상을 찾아낸 다음, 거기에다 정해진 운자를 넣어 재치있게 표현해 내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句와 句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연관성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써야 했다. 시에 일가견이 있는 문인들은 이처럼 정해 놓은韻字를 가지고서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훌륭히 시를 지어냈는데, 그럴 때에는 보통 때 시를 지을 때보다 한층 더 기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일정한 제약이 전제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뛰어난 재치와 능력을 발휘한 데 대한 만족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인용한 송강의 차운시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석천을 위시한 식영정 4선들은 특히 ‘식영정’을 제재로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20곳을 가려 읊었다. 연작의 형식을 취해 각기 20수씩 읊은 5언절구 <息影亭題詠>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살핀 석천과 송강의 <環碧龍湫>가 그 한 예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20수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풍광마다 붙인 작은 제목들 역시 거의 같다. 그러나 작품 제작 시기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와 함께 각기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시들이 이들 4선이 함께 어울려 노닐면서 지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차운시라고 해서 반드시 한 자리에서 직접 주고 받으

며 그 모두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송강의 경우는 『松江原集』에 <息影亭雜詠>이라는 제목으로 10수, 『松江別集』에 <息影亭雜詠次韻>이라는 제목으로 10수씩이 전한다. 이들 식영정 4선의 <息影亭題詠>은 요컨대 당대 사대부 문인들의 시적 교유를 대변하는 실레이자, 作詩 활동의 한 표본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을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은 아주 많다. 그 가운데서도 식영정 4선과 관련된 차운시들에는 송강의 시적 교유와 분방한 사유의 세계를 살필 수 있는 면면들이 풍부하다. 특히 그의 한시가 지닌 풍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스승 석천과의 시적 교유는 각별한 것이었다.

송강은 석천에게서 특히 위대한 시인의 풍모를 본 듯하다. 그래서 스승을 마음으로 우러르고 받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천과 송강이 식영정의 오동나무를 두고 주고 받은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한다. 두 시의 제목은 모두 <벽오동나무에 걸린 서늘한 달[碧梧涼月]>²⁸⁾이며, 5언절구로 되어 있다.

| | |
|-------|--------------------|
| 秋山吐涼月 | 가을 산 서늘한 달 토해 내더니, |
| 中夜掛庭梧 | 한 밤중 뜨락 오동나무에 걸렸네. |
| 鳳凰何時至 | 봉황은 어느 때야 날아오려나, |
| 吾今命矣夫 | 지금 내 생애야 보리오마는. |

| | |
|-------|--------------------|
| 人懷五色羽 | 선생은 봉황의 문장 품으셨는데, |
| 月掛一枝梧 | 오동나무 가지엔 달이 걸렸네. |
| 白髮滿秋鏡 | 백발이 가을 달 속을 가득채우니, |
| 衰容非壯夫 | 쇠한 모습 이제 장부는 아니로세. |

위쪽의 시가 석천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시가 송강이 지은 것이다.

석천의 시에는 가을 산이 토해 낸 서늘한 달빛 이미지와 함께, 인생 황혼기의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다. 그래서 달빛이 무척이나 싸늘하게 느껴진다. 석천은 한 밤중 오동나무에 걸린 달을 보고 봉황을 생각한다. 오색의 아름

28) 『石川集』·『松江續集』 卷1

다운 날개를 하고 대나무 열매를 먹으며 벽오동나무에 깃을 드리운다는 그 상서로운 새는 어느 때나 날아 오려는지……. 그러나 아무런 기약이 없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 고대하던 태평세월은 아마도 가망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송강은 이런 스승의 심정을 헤아리듯 곧바로 화답한다. 어찌 속절없이 늙기만 하셨겠습니까. 선생님이야말로 그 오색의 아름다운 날개로 상징되는 봉황의 문장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동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과 어울린 선생님의 백발을 봅니다. 위대한 시인의 풍모를.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장부는 아니시지만, 저렇듯 맑게 비추는 달처럼 원숙하신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송강의 시에는 스승을 우리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은근하고도 정겹게 담겨 있다.

이처럼 스승에 대한 정이 두텁고 각별했기에, 송강은 석천이 세상을 뜨자 그의 덕과 인품을 기리며 간절히 그리워한다. 예의 <息影亭雜詠> 10수 가운데 한 수인 <仙遊洞>에서, “끼치신 유풍을 어루만지며 / 머리 허연 제자가 슬퍼합니다.”²⁹⁾라고 한 데 잘 나타나 있듯, 그 자신 ‘머리 허연’ 나이에 이르도록 석천의 감화를 기리면서, 세월의 두께 만큼이나 겹겹이 쌓인 간절하고도 애뜻한 정을 노래하기도 했다.

요컨대 송강은 석천에게서 특히 한시의 다양한 시풍과 화려하고도 낭만적인 정서를 많이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강의 우리말 시가는 그 중심 시상이나 시적 이미지가 그가 지은 한시와도 상통하는 점이 많은데, 이 점에 있어서도 석천은 송강의 시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서하 김성원과의 교유는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은 물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도 유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지고 보면 서하는 송강의 처기쪽 어

29) 招俵無遺蹤 白頭門下士 : <仙遊洞>, 『松江原集』 卷1 ※이 작품에서 기리는 인물이 『松江原集』 해당 부분에 부기되어 있는 ‘하서’가 아니라 ‘석천’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박준규, 앞의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206쪽을 참조.

른이요, 나이가 송강보다 11살이나 위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흥금을 털어 놓고 사귀는 사이였다. 훗날 송강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향리 창평으로 내려 올 때마다, 그를 가장 반겨 맞아주었던 이도 바로 서하다. 여러 사정을 떠나, 젊은 시절에 만나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遙寄霞堂主人>³⁰⁾ <멀리 하당 주인에게 부치다>

| | |
|-------|-------------------|
| 霞老平生友 | 서하 당신은 평생의 벗이라, |
| 難忘夢寐間 | 꿈결에도 잊지를 못한다오. |
| 吾方走塵世 | 나는 지금 속세를 헤매지마는, |
| 君獨臥雲山 | 그대는 홀로 먼 산에 누웠구려. |

위 작품에서 보듯, 송강은 서하를 ‘평생의 벗’으로 여겼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한다. 그 우정의 깊이를 둘째 구 ‘꿈결에도 잊지를 못한다오.’에서 넉넉히 헤아릴 수 있다. 나아가 벼슬아치로서 ‘속세를 헤매는’ 자신의 삶과 ‘먼 산에 누워’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는 서하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데서는, 서하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송강의 애뜻한 심사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서하와 떨어져 있을 때면, 송강은 그와 어울려 지내던 시절의 추억이나 성산 주변의 정경들을 눈에 아련히 떠올리곤 한다. 이런 심경과 재회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는 7언절구를 한 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與霞堂丈步屨芳草洲還于霞堂小酌>³¹⁾

하당장과 풀꽃 핀 물가를 거닐다가 서하당에 돌아와 조촐히 잔을 들다

散策芳洲倦却廻 풀꽃 핀 물가 거닐다 지쳐 돌아와,

30) 『松江續集』 卷1

31) 『松江原集』 卷1

| | |
|---------|--------------------|
| 殘花影裏更傳杯 | 꽃 그림자 속에서 술을 나누네. |
| 年年南北相思夢 | 해마다 남쪽 북쪽에서 그리는 꿈은 |
| 幾度松臺夜半來 | 몇 번이나 밤중에 이곳에 왔던가. |

실로 오랜만이라 할 이야기도 많다. 그래서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과 지난 날 함께 쌓았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풀꽃이 흐드러지게 핀 물가를 함께 거닌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피로가 몰려온다. 서하당으로 다시 돌아와 주인과 조촐하게 술잔을 기울인다. 깊어가는 봄날, 꽃 그늘을 배경삼아 앉은 자리에 하나 둘 꽃잎이 진다. 아아, 얼마나 이런 일을 그리었던가! 고즈넉한 밤이면, 꿈길에서도 몇 번이나 이곳으로 달려왔던가! 마치 꿈만 같다.

이 시는 어느 해 송강이 낙향한 직후에 지은 듯하다. 제목 자체에서 작품을 짓게 된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몇 년을 두고 서하와 남북으로 떨어져 그리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누게 된 후련함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다.

송강은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이처럼 서하가 있는 성산을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그와의 재회는 언제나 반갑고 즐겁다. 힘들고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아늑하고 정겨운 곳에 머무는 것은 또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 여기에서 ‘풀꽃 핀 물가’는 성산 앞을 흐르는 紫薇灘 일 시 분명하다. 자미탄은 바로 서하당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요컨대 이 시에는 그가 ‘霞翁’ 혹은 ‘霞堂丈’이라고 존칭하여 부른 서하와의 각별한 교분이 잘 나타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송강은 그의 <성산별곡>에서 서하의 세속에 초연한 삶과 풍류생활을 의미 있게 기리기도 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거나 추구했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일 수 있지만, 아마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서하당·식영정 주인으로 대변되는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에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동문수학하던 시절이나 낙향하여 지내던 시절을 제외하면, 송강과 서하는 떨어져 지내는 시절이 많았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시들을 주고받은 일이 적지 않았다. 이는

나이가 지긋해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음의 두 시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聞鄰友會棲霞堂以詩先寄>³²⁾

이웃 친구들이 서하당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시를 지어 먼저 부치다

| | |
|---------|-------------------------|
| 羣仙聯袂訪仙居 | 뭇 신선 줄을 지어 신선의 집 찾아 드니, |
| 花發碧桃山雨餘 | 복사꽃 활짝 피어 산빗방울 맺혀 있네. |
| 勝事於吾已無分 | 그처럼 좋은 일이야 내 분에는 없는 일, |
| 白頭回處意何如 | 흰 머리 돌리면서 그윽한 정 생각하네. |

<次松翁韻>³³⁾ <송강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짓다>

| | |
|---------|----------------------|
| 春去星山野老居 | 성산 늙은이 사는 곳에 봄날 다하니, |
| 碧桃花落已無餘 | 복사꽃도 시들어 꽃잎마저 다 졌네. |
| 相思脉脉水南北 | 그리운 사람일랑 남북으로 멀고 멀어, |
| 咫尺方知千里如 | 지척이 천 리란 말 이제사 알겠네. |

위쪽에 인용한 시가 송강의 작품이고, 아래쪽의 것이 서하의 작품이다.

먼저 송강은 서하의 거처를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일컬으면서 그곳을 찾아 드는 신선 친구들을 더없이 부러워한다. 그곳은 지금쯤 산비가 스쳐 지나가면서 복사꽃을 활짝 피웠으리라. 한바탕 웃음이 돌고 서로들 술잔을 기울이겠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딱하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그처럼 즐거운 일은 내 분수에는 없는 일이려니 하면서 체념한다. 다만 ‘흰 머리 돌리면서’ 서하당 쪽을 향해 그윽한 정을 담은 눈길을 보낼 따름이다.

이 같은 송강의 생각에 서하는 답한다. 그것은 그대의 상상일 뿐이라고. 그처럼 꽃 피고 새 울던 봄날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꽃잎 지듯 허전하고 쓸

32) 『松江原集』 卷1
33) 『棲霞堂遺稿』 詩

쓸한 풍경만이 주변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그대. 많이 보고 싶다네. 마음 같아서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얼굴 내밀 듯 싶은데,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지척이 천리란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네.

사실, 송강과 서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반갑게 만나 정다운 얘기들을 나누었다. 비록 걷는 길은 각기 달랐을지라도, 마음 속에서는 늘 서로를 생각하며 아껴주었다. 기질이 정히 같았던 것도 아닌 듯한데, 두 사람은 시원스럽게 통했다. 송강에게는 ‘그곳에 가면 그가 있다’라는 든든함이 항상 그를 푸근하게 해주었고, 서하는 송강과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다. 벼슬길에 나아가 있을 때든, 낙향해 함께 지낼 때든, 서하는 한결같이 송강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래서인지 서하와의 교유시에서는 유다른 정감이 배어난다.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는 이상에서 살핀 석천·서하와의 경우 외에도 아주 많다. 그러나 송강에게 있어서 담양 창평이 창평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성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던 식영정·서하당과 그 두 누정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석천과 서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은 특히 창평에 깃을 드리우고 지내던 시절에 더욱 비옥해지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 작품들에는 특히 송강 평생의 정신과 정서가 깃든 마음의 고향인 사실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정치무대 동반자들과의 교유시

사람의 일생에서 성장기의 스승은 정신적인 틀을 갖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회생활의 동반자들이다. 송강은 그와 뜻이 맞는 이들과 두루 사귀었으면서도, 특히 栗谷 李珣(1536~1584)·牛溪 成渾(1535~1598)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이

들과는 서로 비슷한 연배에 놓여 있었으며, 비교적 일찍부터 교분을 쌓았던 터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이는 훨씬 위지만 思菴 朴淳(1523~1589)과도 더없이 막역하게 지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일들로 바람 잘 날 없는 정치무대에서나, 정치현실의 자장권에서 벗어나 앞 일을 모색하며 생활하던 때에도, 이들과 당면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로 지냈다. 이른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주면서 평생의 지기로 지냈던 것이다.

율곡은 송강과 태어난 날이 불과 20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동갑내기였다. 송강의 「연보」에 따르면, 21살 때 그를 처음 만나 교우의 도를 정했다고 한다. 또 송강이 지은 「율곡 제문[祭栗谷文]」에 따르면, 재야의 선비라는 것 외에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李希參이라는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때 율곡은 금강산에서 불교 공부를 한 후 처음 서울에 왔었다고 한다. 이후 송강은 율곡이 49살로 세상을 뜰 때까지 평생의 지기로 지낸다.

송강은 벼슬길에 나아가 율곡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면서 밝은 治世를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東西朋黨의 분쟁이 격화되자, 때로 서로의 입장이 달라 불화하기도 한다. 송강이 명철한 사태 판단과 강직한 품성으로 상대 세력인 東人에 적극적인 공세로 임하려는 데 비해, 율곡은 항상 조정의 화합을 위하여 蕩平을 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우의는 다시없이 돈독해서, 송강이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품성으로 인해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율곡은 매번 앞장서서 그를 변호하였다. 당시 격화되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강이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율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³⁴⁾

동서붕당 간의 알력과 대립으로 조정에 불화가 생겨났을 때, 송강은 때때로 율곡에게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시를 지어 보인다. 송강이 司諫 벼슬에 있던 시절, 조정의 못마땅한 처사를 율곡에게 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3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

문제의 인물을 탄핵할 것을 주장하는데, 율곡은 그렇게 되면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만류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듯 의견이 서로 엇갈리자 송강은 마침내 동서봉당 간의 화합을 율곡에게 부탁하고 향리 창평으로 내려가면서 다음과 같은 7언절구를 지어 자신의 뜻을 보이는 것이 그 한 예다.

<贈別栗谷>³⁵⁾

<율곡에게 이별하며 주다>

| | |
|---------|-------------------------|
| 君意似山終不動 | 그대 뜻은 산 같아 종내 움직이지 않는데, |
| 我行如水幾時廻 | 내 걸음은 물 같아 어느 때나 돌아오려나. |
| 如水似山皆是命 | 물 같고 산 같은 것 모두 다 운명인가, |
| 白頭秋日思難裁 |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헤아리기 어렵구려. |

서로간의 의견 차이에 말미암은 송강의 착잡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물 같고 산 같은 것 모두 다 운명인가.’라는 대목에서는, 체념보다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담담하게 배어 있다. 그렇기에 마지막 구에서 도무지 어떻게 생각을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헤아리기 어렵구려.’라는 탄식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송강이 사귄 벗 가운데서도 율곡은 특히 정치무대의 동반자였다. 그와 진지한 학문적 대화를 주고 받은 일 역시 적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동고동락했다. 위의 예에서처럼 현실에 대처하는 태도나 행동방식이 서로 달라 때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입장에는 차이가 없었다.

35) 『松江原集』 卷1

<過花石亭>³⁶⁾

<화석정을 지나면서>

山形背立本同根
江水分流亦一源
花石古亭人不見
夕陽歸路重銷魂

산이 서로 등졌지만 맥은 본래 한 가지요,
물이 따로 흐르지만 근원이야 하나로세.
화석이라 옛 정자 사람 볼 수 없나니,
돌아가는 석양길에 혼이 거듭 녹아나네.

‘화석정’은 율곡과 인연이 깊은 경기도 파주 율곡에 있는 정자다. 율곡의 자취가 남아 있는 정자를 지나면서, 유명을 달리한 그를 간절히 그리워한 시다. 다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율곡과는 ‘맥’도 ‘근원’도 함께했던 사이였기에, 그를 생각할 때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 애끓는 심정을 마지막 구 ‘돌아가는 석양길에 혼이 거듭 녹아나네.’에서 실감할 수 있다.

둘 사이의 교분과 우의가 이리했기에, 율곡 또한 송강에 대해서는 각별한 情誼를 가지고 있었다. 송강이 副校理의 직책을 맡고 있던 시절, 사명을 받들고 호남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가 떠날 때 율곡 또한 자신의 향리 강릉으로 향하는데,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송별한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상황 자체를 제목으로 하여 율곡이 송강에게 지어준 5언율시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鄭季涵微奉使湖南余有關東之行臨別賦贈>³⁷⁾

계함 정철은 사명을 받들고 호남으로 가고 나는 관동으로 가는 이별의 자리에서 지어 주다

石友分千里
幽懷付一嗟
東關迷雪路
南國渺星槎

굳게 사귄 벗 천리 길 헤어지나니,
가슴 속 쌓인 정회 한숨에 부친다오.
동으로 대관령 눈길처럼 어지럽고,
남으로 뻗은 길 뱃길처럼 아스라하네.

36) 『松江原集』 卷1

37) 『栗谷全書』 卷1

| | |
|-------|-----------------------|
| 芳草佳期闊 | 꽃다운 풀 좋은 기약 멀기만 한데, |
| 寒梅晚影斜 | 차가운 매화에 저녁 그림자 어리는구려. |
| 堪憐今夜月 | 가엾어라 오늘 밤 솟은 달이여, |
| 相送到天涯 | 서로 떨어져 하늘 끝에 이르게 하네. |

‘굳게 사귄 벗’과 서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래서 대관령 너머 강릉과 머나먼 남녘 땅 사이의 ‘천리 길’이 참으로 멀고 애달게 느껴진다. 꽃 피는 봄이 오면 하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이 별이기에, ‘차가운 매화에 저녁 그림자 어리는’ 계절에 헤어지는 아쉬움을 더욱 간절하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려 ‘솟은 달’마저 가엾고 쓸쓸하다. 이제 서로 헤어지면, 다만 ‘하늘 끝’에서 저 달을 쳐다보며 서로 그리워하리라.

마음을 나눈 벗과 헤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이 구절 사이사이에 흥건히 배어 있다. 그 정 의 간절함에서 두 사람의 우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진실한 벗 사이의 이별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시다. 이 때 송강이 율곡에게 화답한 시는 아쉽게도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율곡이었기에 그가 49살(1584 · 선조 17년)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기를 잃은 송강의 비통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21살 때 만나 이후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고 받은 사이였으니,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빈 자리가 두고두고 송강을 눈물짓게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욱이 당쟁의 소용돌이는 당시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벗이 많지 않았던 송강으로서는, 율곡의 죽음이 그야말로 참담하기조차 했을 것이다.

송강은 율곡을 두고 지은 한시 10여 수와 祭文, 輓詩 등을 남겼다. 함께 벼슬살이할 무렵 율곡에게 자신의 뜻을 내보이며 지은 몇 편의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먼저 떠난 율곡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담은 내용들이다. 다음과 같은 7언절구가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다.

<挽友>³⁸⁾

<친구의 만시>

| | |
|---------|---------------------|
| 人說人間勝地下 | 남들은 이승이 저승보다 낮다지만, |
| 我言地下勝人間 | 나는야 저승이 이승보다 나올레라. |
| 左携栗谷右君望 | 울곡이랑 군망을 좌우에 손잡고, |
| 半夜松風臥碧山 | 한밤중 솔바람 푸른 산에 누우리니. |

죽어 ‘울곡’과 ‘군망’³⁹⁾을 좌우에 두고 ‘솔바람 푸른 산’에 누울 수 있기에 차라리 ‘저승이 이승보다 나올레라.’라는 말에서, 벗의 죽음을 애도하는 송강의 간곡한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인간적 유대와 슬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애도의 정이 몇 마디의 말 속에 절절이 배어 있다. 송강은 울곡이 세상을 뜨고 난 후 10년을 더 산다. 그러나 울곡이 곁에 없기에 그만큼 힘든 일이 적지 않았다. 송강의 벼슬살이는 울곡이 있었기에 큰 힘이자 위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울곡이 정치무대의 동반자였다면, 牛溪는 송강이 보다 폭넓게 자문을 구한 사회생활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계는 일찍이 경국제민의 뜻을 접어두고 학문과 교육에 힘쓴 성리학의 대가요 재야 선비다. 19살 때부터 울곡과 사귀게 되면서 그와 평생의 지기가 되었고, 32살 때 퇴계를 만나고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우계는 재야에 있으면서도 학덕과 인망이 높아, 선조 임금으로부터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임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임금이 사임을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몇 차례 있었다.

송강은 우계와도 일찍부터 교우의 도를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는 우계가 송강보다 한 살 위다. 송강이 진사 시험에 합격한 해(26살·1561년) 우계가 송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대를 사모하여 잊을 수 없는 것이,

38) 『松江原集』 卷1

39) 울곡과 함께 애도한 ‘君望’은 송강의 또다른 벗 辛應時(1532~1585)의 字다. “신군망 교리 적의 내 마침 수찬으로...”로 시작되는 송강의 시조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다.

어찌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무리들이 서로 마음이나 기개가 맞아 사귀면서 사사로이 감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리오. 다만 분발하시고 기운을 가다듬어 게을리 않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또 나는 질병을 빌미로 장차 안일 방랑으로 세월을 보낼 염려가 있으므로, 봉우와 더불어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을 생각하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니, 바람을 향하여 멀리 있는 그대 생각을 그칠 수가 없구려.”⁴⁰⁾라고 한 것을 보면, 일찍부터 교분을 쌓은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의리가 실로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송강과 우계가 시를 주고 받으며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던 시절, 우계가 송강에게 지어 보낸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5언절구가 있다.

<次鄭松江徹韻⁴¹⁾> <정송강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짓다>

| | |
|-------|-------------------|
| 彼美松江水 | 저 아름다운 송강의 물, |
| 秋來徹底清 | 가을 다가오니 바닥까지 맑구나. |
| 湯盤供日沐 | 날로 새로워라 함께 목욕하노니, |
| 方寸有餘醒 | 마음에 넘치는 깨달음 있네. |

‘바닥까지 맑은 송강의 물’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그와 교유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다. 특히, 맑은 물과 같은 심성을 가진 이와 생각을 주고받노라니 ‘마음에 넘치는 깨달음’이 생겨난다고 한 데서, 둘 사이에 오간 더할 나위 없는 우정의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우계는 송강의 공부를 격려하는 글 가운데에서, “우계의 물과 송강의 물이 다 같은 맑은 물입니다. 어찌 멀리서 한 모금의 물을 떠와 나누어 넣음으로써 나머지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리오. 그러나 우계의 물은 항상 맑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감히 스스로 그 맑음을 믿고서 더 맑게 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리오. 바라건대 송강의 맑고 차가운 물도, 탕 임금이 목욕하는

40) 僕慕君不可忘者 豈如豪俠輩許人 以意氣出於激昂之私也 但願奮勵不怠耳 且僕托於疾病 將有安肆日偷之患 思與朋友同處 而不可得 則嚮風遐想不可已也 : 『年譜』, 『松江別集』 卷2

41) 『年譜』, 『松江別集』 卷2

그릇에 새긴 것과 같이 날로 새로워서, 마음 밖의 탁한 사물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⁴²⁾라고 하였다. 송강의 공부를 격려하는 말과 함께 학문하는 방법을 논한 글이다. 본래 가지고 있는 맑은 심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자기다짐이자 당부다. 진정으로 벗을 경계하고 아끼는 마음을 담으면서, 송강의 두드러진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송강과 우계는 실로 다방면으로 교류한다. 젊은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부딪히는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면 으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국가의 대소사에 우계를 찾아가 자주 禮를 묻기도 하고, 자신의 만아들을 그에게 보내어 배우게도 한다. 자신의 품성이나 행동 방식 혹은 처세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해의 폭이 넓었던 우계였기에, 송강은 그를 믿고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물론 우계 역시 송강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면 송강은 우계에게 시를 지어 보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7언절구가 그 한 예다.

<寄示牛溪>⁴³⁾

<우계에게 부쳐 보인다>

禁掖何年捧玉音
白頭三宿小岳心
平生欲止陶公酒
每到愁時淺淺斟

대궐에서 어느 해에 임의 말씀 받들었던가,
백발에도 못잊어 그리워하는 소신의 마음.
평생을 끊고자 한 도연명의 술이지만,
수심이 어릴 때면 조금조금 마신다오.

낙향의 처지에 놓여 있던 어느 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첫 구 ‘대궐에서

42) 牛溪之水與松江之水 同一清也 亦何待於遠挹一勺 而分餘清第 懼牛溪之水無常清 豈敢自恃其清 而不加澄之功 亦願松江清冷之水 與湯盤而日新 無使外物之漏 少有滓於其間也 : 「年譜」, 『松江別集』 卷2

43) 『松江原集』 卷1

어느 해에 임의 말씀 받들었던가'라는 표현으로 보아, 낙향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듯하다. 또 '백발에도 못잊어 그리워하는 소신'이라고 했으니, 나 이도 지긋해진 무렵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고질적인 병통인 줄 알면서도 '수심이 어릴 때면 조금조금 마신다.'고 하면서,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평생을 끊고자 한 도연명의 술', 즉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느 것에도 마음 기댈 수 없는데 오로지 술만이 자신을 잠시나마 흐뭇하게 한다고 했던 '도연명의 술'은, 우계를 향한 허물없는 고백이자 자기위안이라 할 수 있다. 뜻과 같지 않은 세상살이의 시름을 우계에게 친근하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러 국정에 자문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우계로 말하면 대부분 현실의 자장권 밖에서 생활했던 이다. 그래서 송강은 때로 그의 심경에 가탁한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한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다음과 같은 7언절구 한 수를 들어보기로 한다.

<寄示牛溪>⁴⁴⁾ <우계에게 부쳐 보이다>

| | |
|---------|-------------------------|
| 苦調難諧衆楚音 | 피로운 곡조 예사 노래와 어울리기 어려워, |
| 病夫於世已無心 | 병든 몸 세상과는 이미 마음이 없네. |
| 遙知湖外松林下 | 아마도 강호의 술숲 아래서, |
| 歲暮寒醪滿意斟 | 세모라 찬 술을 마음껏 마시리. |

뜻하는 바 마음을 달리 두어서인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인지,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는 벼슬길에서 이미 마음을 접었네. 한해가 저무는 겨울,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찬 술을 마음껏 기울이며 지내리.

현실의 자장권에서 벗어나 있는 우계의 심경과 생활의 단면을 읊은 듯하

44) 『松江續集』 卷1

다. 그러나 달리 보면, 송강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다는 것을 옳고 있는 듯도 하다. 그래서 이 시는 우계에 관한 이야기면서 송강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고 보면,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마음까지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돈독한 우정은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생겨난다 하겠는데, 위의 교유시편들에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가 이와 같았기에, 송강과 우계가 받은 시문·편지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송강이 우계에게 보낸 14통에 달하는 편지에는, 그가 벼슬 길에 나아가 있을 때든 낙향의 처지 혹은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든, 일상에서 겪는 다단한 문제들을 상의하고 진정으로 충고를 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송강과 우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유 내용들로부터, ‘평생의 지기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송강은 우계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한편, 송강의 사회생활 혹은 정치무대 동반자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또한 思菴 朴淳(1523~1589)이 있다. 사암은 당대 호남시단의 師宗으로 일컬어진 訥齋 朴祥(1474~1530)의 조카로서, 학문·시문은 물론이요, 정치적 역량도 남달랐던 인물이다. 일찍이 花潭 徐敬德(1489~1546)에게서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문장·글씨 뿐만 아니라, 시에 특히 뛰어났다. 당시 삼당시인으로 일컬어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즉 玉峯 白光勳(1537~1582)과 孤竹 崔慶昌(1539~1583)을 그의 문하에서 배출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암은 특히 송강·율곡·우계와 교분이 두터웠다. 이들보다는 나이가 10년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역한 선배이자 지기로서 어울려 지냈다. 그래서 당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는 동인들로부터 서인의 실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송강 등 세 사람이 동인들로부터 탄핵을 입었을 때, 이들을 옹호하다가 도리어 탄핵을 입고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⁴⁵⁾

송강은 일찍이 사암의 종사관이 되면서 돈독한 교분을 쌓게 된다. 그의 나이 33살 때였다. 물론 사암이 놀재의 조카인 데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향리 나주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이었던 송강이 가까이에서 사는 그와 이미 교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송강으로서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알아주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부터 마련해 준 인물이 바로 사암이었다. 나아가 송강은 당쟁의 풍파가 몰아치는 험난한 정계에서 복잡다단할 일들로 난관에 봉착할 때면, 그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의지하는 바 적지 않았다. 송강에게 있어서 사암은 단순히 노선을 같이하는 정계 선배로서보다는, 서로 우애하며 가시덤불을 헤쳐나간 형제와도 같이 지냈다.

사암이 송강에게 지어 준 시와 송강이 사암을 그리워하는 시 수 편이 전한다. 그 시편들에는 두 사람 사이의 도타운 교분만큼이나 다사로운 정이 잔잔하게 배어 있다. 차운시의 형식을 취한 다음과 같은 7언율시는 그 한 예다.

<次思菴韻>⁴⁶⁾ <사암의 운을 따서 짓다>

| | |
|---------|--------------------------|
| 身如病鶴未歸山 | 몸은 병든 학이건만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
| 溪老松筠谷老蘭 | 시내와 골짜기엔 송죽 난초 늙었다오. |
| 漢水秋風愁裏度 | 한강이라 가을 바람 시름 속에 지나가고, |
| 楚雲鄉路夢中漫 | 아득한 고향 길 꿈 속에도 멀더이다. |
| 人情閱盡頭全白 | 세간 인심 겪고 나니 머리 모두 희어지고, |
| 世味嘗來齒更寒 | 세상 맛 씹어 보니 이가 다시 시리구려. |
| 遙憶松江舊釣侶 | 먼 추억 송강에서 낚시하던 옛 친구들, |
| 月明搖櫓下前灘 | 밝은 달에 노 저으며 앞 여울로 내려가네. |

본시 ‘학’의 심성을 지녔지만, ‘송죽 난초’ 우거진 산에 깃들지 못한 채 세

45)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

46) 『松江原集』 卷1

간에서 늙고 병든 몸이 되었다. 어느 때나 편안히 깃 드리울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길은 아득하고 시름만 쌓인다. 세파에 시달리노라니 머리는 이미 백발이요, 여전히 차가운 인심에 이조차 시리다. 그리운 것은 지난 날 ‘송강에서 낚시하며’ 놀던 친구들. 그 세속에 물들기 전 아련한 추억들만 문득문득 떠오른다.

벼슬살이의 고달픈 심정을 노래하면서, 세파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아늑히 감싸줄 고향의 품을 그린다. 이런 자신의 심사를 마치 사암에게 하소연하듯, 나아가 사암 역시 이런 심사일 시 분명한 감정적 동화상태를 확인하듯 노래하고 있다. 특히 ‘송강에서 낚시하며 놀던 친구들’에 대한 추억은, 아마도 그와 사암이 공유하는 옛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암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가운 정감이 깃들여 있다.

각박하고 모진 벼슬살이에서 사암은 너른 일새들로 거친 비바람을 막아 주기도 하고 때로 한 숨 돌릴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사암을 생각하는 송강의 정은 각별하다. 그와의 교분을 아련한 듯 담담하게 떠올리는 7언절구 한 수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湖亭憶朴思菴>⁴⁷⁾ <호정에서 박사암을 추억하다>

| | |
|---------|------------------------|
| 江上高臺春草深 | 강 가 높은 누대에 봄 풀이 깊었는데, |
| 仙遊往跡杳難尋 | 신선되어 놀던 자취 찾을 길 아득하네. |
| 若非跨鶴清都去 | 만약에 학을 타고 선경으로 아니 갔다면, |
| 正是騎星故國臨 | 정녕히 별을 타고 고국을 내려다보리. |

봄이 되자 강 가에 선 높다란 누대 주위에 자욱히 풀이 돌아난다. 지난 날 이 곳에서 사암과 어울려 즐기던 풍류, 그 시절 추억이 다시 돌아나는 풀처럼 자욱히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암, 그가 남긴 이승의 자취는 흔적조차 찾을 길 없다. 아마도 학을 타고 신선의 나라에 가 있거나

47) 『松江續集』 卷1

않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시 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 곳, 진진한 추억과 정이 서린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으리라. 남기고 간 사람들 차마 잊지 못해 곱어 살피면서…….

세상을 떠난 사암을 그리워하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추억을 기린 시다. 사암은 67살을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는데, 그 때 송강의 나이는 54살이었다. 20여 년 동안 쌓아 온 정분을 어찌 한 두 줄의 말로 드러낼 수 있겠는가마는, 사암이 없는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이처럼 답답하게 달래는 송강의 심사에서, 오히려 시공을 초월한 끈끈한 유대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3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암은 송강을 막역한 벗이자 형제처럼 위해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년 뒤에 송강 역시 유명을 달리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히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벗을 만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런저런 풍파가 휘몰아치는 정치무대에서 서로 의기투합하며 동반자의 길을 걷는 벗을 구하기란 아주 드물다. 송강의 경우는 율곡·우계와 같은 벗이자 동반자들이 있었기에, 당쟁이라는 당대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름의 길을 헤쳐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암과 같은 이와는 나이까지를 떠나 더없이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송강의 품성이나 기질은 원만하기보다는 강직하고 거침이 없는 편이었기에 적지 않은 고난이 따랐는데, 이들 지기들과 교유한 시편들 속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고 평생을 통해 쌓아간 情誼와 유대감이 행간에 잘 배어 있다고 하겠다.

5.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송강은 지금까지 살핀 스승과 벗들 혹은 정치무대의 동반자들 외에, 당대 이름높은 학자·문인들과도 돈독한 유대를 맺으며 교유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학문적 식견과 문학적 자질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다져나간다. 龜峯 宋翼弼, 玉峯 白光勳, 孤竹 崔慶昌, 霽峯 高敬命, 白湖 林悌와 같은 이들과의 격

의 없는 교유가 그것이며, 동시대에 벼슬살이를 했던 退溪 李滉과의 교유를 제재로 한 시편 또한 전한다. 이들 역시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이다.

龜峯 宋翼弼(1534~1599)은 庶出로서 신분 자체는 미미하였지만, 아버지가 당상관에 올라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던 터에,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일찍부터 글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율곡·우계와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하였고, 특히 禮學에 밝아 조선조 예학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沙溪 金長生(1548~1631)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의 막후실력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지위나 벼슬을 갖지 못했고, 당대 유력한 인사들과 교유하며 지냈을 뿐, 대체로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다.

구봉은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선조대 8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으며, 그의 문하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경기도 고양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마했는데, 송강은 그에게 여러 차례 예를 묻은 것은 물론, 그와 빈번히 왕래하며 조정의 일들을 의논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변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송강은 그와 비슷한 연배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특히 율곡, 우계, 구봉과 우의가 두터웠다. 이들 네 사람이 서울 남산에 올라 각 구를 이어 지은 다음의 시는, 그 유례가 흔치 않은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언율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遊南嶽聯句>⁴⁸⁾ <남악에 노닐 적에 이어 지은 시>

| | | |
|-------|------------------|------|
| 衣草人三四 | 초의 입은 서너 사람 | |
| 於塵世外遊 | 세상 밖에 나와 노닌다네. | [구봉] |
| 洞深花意懶 | 골짜기 깊으니 산꽃은 필동말동 | |

48) 『松江別集』 卷1

| | | |
|-------|------------------------|------|
| 山疊水聲幽 | 산이 첩첩하니 물소리 그윽하여라. | [율곡] |
| 斷嶽盃中畫 | 깎아지른 뒤편은 잔 가운데 그림이요 | |
| 長風袖裏秋 | 불어 예는 바람은 소매 속의 가을이로세. | [송강] |
| 白雲巖下起 | 흰 구름 바위 아래서 피어 오르니 | |
| 歸路駕靑牛 | 돌아가는 길에는 푸른 소를 타리라. | [우계] |

먼저 운을 뗀 구봉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탈속의 경지가 노래되고 있다.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든 양 ‘초의’를 입고 ‘세상 밖에서 노니는’ 존재들로 자신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호기가 넘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서너 사람’이라는 표현이 묘한 맛을 풍긴다. 자신을 포함하면 분명 네 사람인데, 그렇게 못박아 말하지 않고 ‘서너’라고 말한 데에 오히려 멋과 여유가 있다.

이어지는 율곡의 시구에는, 그윽하고 담담한 빛깔과 소리가 있다. 깊은 ‘골짜기’와 필동말동한 ‘산꽃’, 첩첩한 ‘산’과 그윽한 ‘물소리’에는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작자의 사색적이고 절제된 감각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있는 풍광으로부터 참으로 멋진 대조감과 조화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송강의 시구는 호쾌한 낭만과 섬세한 감각이 넘쳐 흐른다. ‘깎아지른 뒤편’을 술잔 속에 ‘그림’으로 담아 내는 솜씨가 실로 일품이며, 불현듯 ‘소매 속’으로 스미는 ‘바람’을 서늘하게 느끼는 예민함에서 또한 그가 탁월한 감성의 소유자임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호쾌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드러내기란 쉽지 않을 터인데, 송강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마지막을 이은 우계는, 구봉이 펼쳐 놓은 탈속의 세계를 되받아 운치 있게 마무리한다. 산 허리께 바위 아래서 피어 오르는 ‘흰 구름’을 배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푸른 소’를 타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에서 작품 전체를 꿰뚫는 너른 시선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기백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 네 사람의 풍류를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그림 속으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聯句詩에는 네 사람의 우의와 낭만, 개성과 기백이 잘 담겨 있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어느 국면에서는 자유로이 교감하는 정감의 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는 마음으로 통하는 벗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멋진 유대감의 결과라 할 것이다.

玉峯 白光勳(1537~1582)은 당대 손꼽히는 호남 시인의 한 사람이다. 사암 박순의 문인으로서, <관서별곡>을 지은 岐峯 白光弘(1522~1556)의 아우이기도 하다. 시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벼슬살이에 큰 뜻을 두지 않고 詩書에 전념한 인물이다. 옥봉은 주지하는 것처럼 고죽 최경창·蓀谷 李達(1561~1618)과 더불어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송강과 옥봉은 일찍부터 교분이 두터워, 서로 주고 받은 한시 여러 편이 『송강집』과 『옥봉집』에 남아 전한다. 옥봉의 시는 대개 호방한 풍류 기질과 낭만적 정취가 두드러지는데, 이 점은 송강의 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바여서, 두 사람이 기질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 더욱 절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무르녹아 있는 시로서, 먼저 송강이 옥봉에게 준 5언절구 한 수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與白玉峯光勳遊邊山>⁴⁹⁾ <옥봉 백광훈과 더불어 변산에서 노닐다>

| | |
|-------|--------------------|
| 水淺窺龍窟 | 물이 얇아 용의 굴을 엿보겠고, |
| 松疎露鶴巢 | 솔이 성기어 학의 둥지 드러나네. |
| 欲知仙在處 | 신선이 있다는 곳 알고 싶어서, |
| 須入白雲高 | 흰 구름 높은 데로 들어간다네. |

용이 깃들어 살 듯한 계곡의 물웅덩이를 지나자, 오랜 세월의 흔적을 안은 채 기이하게 구불어진 소나무 사이로 학의 둥지가 내비친다. 아마도 저

49) 『松江續集』 卷1

너머 구름 서린 산봉우리가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닐는지. 때마침 벗과 손잡고 선경으로 들어간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변산의 풍광을 완상하면서, 서로가 신선의 경지에 든 양 그윽한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마음이 통하는 벗과 함께하는 경지요 정취이기에, 그 맑은 흥에 정겨움이 더한다. 벗 사이의 친분이라든가 우정을 겉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둘 사이의 긴밀한 유대와 도타운 정을 담담하게 느낄 수 있는 시다.

역시 이와 같은 정감이 짙게 배어 있는 시로서, 옥봉이 송강에게 준 5언 절구 한 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寄季涵直省>⁵⁰⁾ <계함에게 부치노니 바로 살피소서>

| | |
|-------|---------------------|
| 古屋照殘燈 | 옛 집에는 가물가물 등잔불 비치고, |
| 空庭病葉下 | 빈 뜰에는 병든 이파리 떨어지네. |
| 遙知故人懷 | 멀리서 그대 마음 알 듯도 하네, |
| 風雨西宮夜 | 비 바람 몰아치는 서궁 이 한밤에. |

초목 이우는 계절, 삶을 재촉하듯 등잔불이 가물거린다. 내게 남아 있는 날들이란 얼마나 될까? 문득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루 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의 정열과 의기를 이해할 듯싶다. 비 바람 몰아치는 한밤중, 그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분주할 터다. 보고 싶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서 벗에게 전하는 인삿말 같다. 그래서 시의 제목을 <계함에게 부치노니 바로 살피소서>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외롭고 쓸쓸한 방에서 벗을 그리는 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 애뜻한 그리움이 슬프고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옥봉은 송강보다 한 살 아래였다. 그런데도 46살(1582년)의 한창 나이에

50) 『玉峯集』 卷上

옥봉이 먼저 세상을 뜨자, 송강은 깊은 슬픔에 잠긴다. 하늘은 남다른 재주를 가진 이를 세속에 오래 붙들어 두지 않는 법인지, 이승에 남아 있는 이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다. 그를 곡하며 지은 「옥봉 백광훈 제문[祭玉峯白彰卿文]」에서, 송강은 “기산의 빼어난 것과 예수의 맑음은 그대의 기개였고, 시가의 청신함과 필법의 오묘함은 그대의 재주였다. 술단지 앞에서 글을 논할 때는, 유서깊은 칼날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⁵¹⁾라고 그의 빼어난 자질과 문학적 재능을 함축하면서, 그로부터 입은 감화가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서깊은 칼날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한 옥봉의 논평은 곧바로 송강의 문학에 신선한 핏기가 돌게 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孤竹 崔慶昌(1539~1583) 역시 삼당시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탁월한 문인이다. 사암 박순의 제자이며, 송강이 스승으로 모신 송천 양응정에게서도 수학했다. 그의 시는 더없이 맑고 담백하다는 평을 얻었다. 그는 문장에도 뛰어나 당시 8문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으며, 書畵로도 명성을 날렸다. 당대 예술 전반에 걸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팔방미인이었던 셈이다.

고죽의 나이 17살 때(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구를 만나자 통소를 어찌나 구슬피 붙었던지 왜구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물리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의 예술적 재능이 실로 다방면에 걸쳐 두드러졌기에 이런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송강은 고죽보다 3살 위였으며, 서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두터운 교분을 세간에서는 흔히 ‘松竹之交’라 일컬었다고 한다. 나이가 이와 같은 교분은 대를 두고 이어져,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여전했다고 한다. 고죽에 대한 송강의 우정은 특히 고죽이 세상을 뜨기 전후에 얽힌 일화와, 그를 곡하며 지은 輓詩 속에 잘 담겨 있다.

송강은 고죽이 외직에서 내직인 성균관 直講의 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

51) 岐山秀 泗水明 惟子之氣 詩歌清 筆法妙 惟子之才 樽酒論文 肝膽古劍 : 「祭玉峯白彰卿文」, 『松江續集』 卷2

는 도중, 객사에서 병들어 누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곧바로 역마를 빌려 타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고죽이 이미 죽으니, 송강은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한다.⁵²⁾ 그가 지은 다음과 같은 만시에 고죽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挽崔嘉運慶昌>⁵³⁾ <최경창 만시>

| | |
|-------|----------------------|
| 匹馬入雲中 | 한 필의 말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
| 東風何處嘶 | 봄 바람에 어디선가 울부짖는다. |
| 將軍臥細柳 | 장군은 군영에 누워만 있고, |
| 不復上雲梯 | 다시는 구름사다리 올르지 않네. |

말은 능력 있는 장군을 만날 때 제빛이 난다. 마치 높은 구름을 타고 천군 만마를 다스리는 위용을 발휘하듯이. 그런데 말 혼자만이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구슬피 울부짖는 소리를 바람결에 전한다. 장군은 이제 군영에 누워, 다시는 구름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능력 있는 장군이건만, 아아! 구슬픈 말 울음 소리만 들리는구나.

문장·학문·서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자질을 가졌던 고죽이 그의 재능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 45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죽어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그의 죽음을 군영에 누워 죽어 간 장군에 비유한 것도, 그리하여 다시는 구름사다리처럼 높고 빛나는 위치에 오를 수 없는 것도, 참으로 많은 재주와 능력을 지닌 그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 것을 애통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봉과의 교유사에서 볼 수 있었듯, 이 만시에도 역시 벗을 아끼고 존중하는 우정이 간곡하게 배어 있다.

霽峯 高敬命(1533~1592)은 시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문인이자, 의병장으로 이름높은 인물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나아가 校理의 자리에까지 올랐

52) 『孤竹詩集後序』, 『孤竹集』 참조.

53) 『松江續集』 卷1

지만, 당쟁이 격화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지내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 인물이다.

제봉은 주로 담양 창평의 성산을 활동무대로 하여 시를 짓고 풍류생활을 즐겼다. 그가 <식영정제영> 20수씩을 지어 교유한 식영정 4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인구에 회자된 무등산 기행문 <遊瑞石錄>의 지은이가 바로 제봉이기도 하다. 한가롭게 만년을 보내던 제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의 金千鑑 등과 함께 6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왜구에 대항하다가, 금산의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송강과는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친하게 어울려 지냈다. 앞서 <남악에 노닐 적에 이어 지은 시[遊南嶽聯句]>에서 보았듯, 한시에서 구를 서로 나누어 지어 한 편의 시를 이루는 것을 聯句詩라고 하는데, 송강과 함께 지은 다음의 연구시에서 둘 사이의 막역한 교분을 헤아릴 수 있다. 제목은 <죽루연구(竹樓聯句)>⁵⁴⁾이며, 5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卜夜開情飲 밤을 가려 벌이네 정겨운 술자리,
靑燈映竹樓 죽루라 청사초롱 어리 비추네.

醉歌如有助 취중 노랫소리 흥겹기도 하여라,
高處碧雲留 하늘이라 푸르른 구름조차 머무네.

위쪽의 두 구가 제봉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두 구가 송강이 지은 것이다. 제봉의 1·2구가 풍류 마당이 벌어진 정황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송강의 3·4구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발산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차분한 정경과 흥겨운 분위기,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대를 이루면서, 정답이 오가고 한바탕 풍류가 펼쳐지는 어느 청명한 밤의 낭만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정경과 좌석의 분위기로부터 정감의 대조가 한결 절실

54) 『松江原集』 卷1

하게 드러나며, 서로 짝을 이루어 묘한 조화감을 이루고 있다. 맑고 차분한 제봉의 심성과 호방하고 격정적인 송강의 기질이 어우러져, 마치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평평잡한 소를 이루는 듯하다. 이같은 정감의 조화는 서로 긴밀한 교분이나 유대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송강과 제봉 사이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도를 넉넉히 헤아릴 수 있는 예라 하겠다.

白湖 林悌(1549~1587)는 호방한 기질을 가진 문인이요, 세속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탁월한 문학적 재질과 낭만적 일화들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10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으나, 벼슬살이 기간 내내 휘몰아친 당쟁의 변화무쌍한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운 성격이었기에, 그 자신 관직생활에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백호는 관직생활에 대한 환멸과 실의로 유람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술한 일화를 남겼다. 세간에서는 그를 奇人이라고까지 하였으며, 법도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기에, 글은 취하되 사람은 사귀기 꺼려했다고도 한다. 칼과 피리를 좋아했고, 방랑하며 술과 여인과 친구를 사귀었다. 40살을 채 넘기지 못한 생애를 살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 간 시대의 풍류인이 바로 백호였다. 그가 西道兵馬使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시조 한 수를 짓고 제사지냈다가, 임지에 부임하기도 전에 파직당한 일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또 남녀의 정을 속되지 않게 노래한 기생 寒雨와 주고 받은 시조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이같은 백호의 품성과 기질이 송강과 어울렸을 것은 당연하다. 나이는 송강이 13살이나 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나이 차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품성과 기질이 상통하는 바에야 10년 남짓한 나이야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別林子順悌作⁵⁵⁾> <자순 임제와 이별하고 짓다>

55) 『松江原集』 卷1

| | |
|---------|-----------------------|
| 曉起覓君君不在 | 새벽녘에 일어나 임 찾으니 임은 없고, |
| 長河雲氣接頭流 | 은하수 구름 기운 두류산에 닿았구려. |
| 也日竹林須見訪 | 다른 날 죽림으로 찾아줄 때면, |
| 濁醪吾與老妻謀 | 아내 시켜 막걸리 마련하겠네. |

7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순’은 임제의 字다.

홀쩍 떠나간 임제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두류산’(지리산)으로 방향을 잡아 떠났는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다시 마주보고 재회의 기쁨을 나눌 날이 오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리하여 그가 이곳 창평 ‘죽림’에 들르는 날, 술잔 나누며 그 동안 겪고 지내 온 얘기들로 회포를 풀리라 기약한다. 특히 ‘아내 시켜 막걸리 마련하겠네.’라는 마지막 구에서, 그들 사이의 텁텁한 우정과 정감어린 분위기를 십분 느낄 수 있다.

<戲贈林子順梯>⁵⁶⁾ <지순 임제에게 장난삼아 주다>

| | |
|---------|--------------------------|
| 百年長劔倚孤城 | 백 년을 긴 칼 차고 외로운 성에 기대어, |
| 酒倒南溟鱗斫鯨 | 바다로 술을 삼고 고래 잡아 회를 치잖더니, |
| 身世獨憐如倦翼 | 가련한 이 내 신세 날개 지친 새와 같아, |
| 謀生不過一枝營 | 사는 것 기껏해야 한 가지에 깃을 드리웠네. |

이 작품 역시 7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방·활달한 기개로 웅대한 포부를 펼치고자 다짐했건만, 겨우 ‘한 가지’에 깃을 드리운 ‘날개 지친 새’ 처럼 가련한 신세임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첫 구와 둘째 구, ‘백 년을 긴 칼 차고 외로운 성에 기대어 / 바다로 술을 삼고 고래 잡아 회를 치잖더니’의 호방·활달한 기개는 송강 자신이나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호는 자유분방한 삶을 통해 이를 다른 쪽에서 이루었을 성실은 반면, 송강 자신은 경국제민의 뜻을 버리지 못해

56) 『松江續集』 卷1

연연해하다 보니, 예의 ‘한 가지’에 깃을 드리운 ‘날개 지친 새’ 같은 신세가 되지 않았나 탄식하는 것이다. 송강이 이런 일들이 정작 이렇지만은 않을 터지만, 특히 백호를 염두에 둔 것이기에 그 심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호와 자신의 삶을 은연중 대조하는 송강의 심리가 미묘하게 얽혀 있는 작품이다.

송강의 호방·활달한 기질이나 낭만적 정서와 풍류 역시 남다른 바 있지만, 백호와의 교유를 통해 그 틀이 더욱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와 마주하고 정담을 나눌 때면 송강은 훨씬 더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기분을 느꼈을 터기 때문이다. 그가 백호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거나,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재회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은 각별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송강과 백호는 한 마디로 정서를 공유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역한 교분을 나눈 것은 그래서 더욱 정겹고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송강이 남긴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가운데에는 그와 특별한 교분이 있었을 성싶지 않은 인물과의 교유시가 일화와 함께 전해 내려 오기도 한다. 그의 스승뻘되는 退溪 李滉(1501~1570)에 결부된 교유시가 바로 그것이다.

송강의 나이 34살 때인 1569년(선조 2년) 초, 퇴계가 휴가를 얻어 영남의 향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 퇴계를 송별했다. 송강은 때마침 일이 있어서 뒤늦게 쫓아가니, 배를 띄워 이미 강물 위에 있었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과 같은 5언절구 한 수를 퇴계에게 지어 보낸다.⁵⁷⁾

<別退陶先生>⁵⁸⁾ <도산의 퇴계 선생과 작별하며>

追到廣陵上 뒤 쫓아 광나루에 당도해 보니,

57) 『年譜』, 『松江別集』 卷2 참조.

58) 『松江原集』 卷1

仙舟已杳冥 신선 탄 배 이미 떠나 아득하구려.
 秋風滿江思 가을 바람에 그리운 생각 온 강에 가득차서,
 斜日獨登亭 지는 해 바라보며 외로이 정자에 오르네.

이 작품은 후대의 여러 문헌들⁵⁹⁾에서도 ‘시에 조예가 깊은 자가 아니면 능히 내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과 함께 크게 칭송되었다. 특히 셋째 구 ‘가을 바람에 그리운 생각 온 강에 가득 차서’와, 넷째 구 ‘지는 해 바라보며 외로이 정자에 오르네.’에서는, 작별의 아쉬운 정을 간곡하게 담아 내고 있다. 그 연연한 정이 어구들 사이에서 점점이 묻어나는 절창임을 실감케 한다.

마음에 담아 두고 있던 이를 떠나 보내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에 느끼는 ‘가을 강바람’과,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자에 오르는 시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잡힐듯 선하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그 시공 속에 놓여,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젖어드는 느낌을 갖게 한다. 퇴계는 곧 화답하여 시를 부채에 쓰고, 송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조정에서 함께 국사를 논하고 마음을 주고 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송강은 평소 퇴계를 존경하였다. 퇴계 또한 송강을 예사 벼슬아치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퇴계는 송강을 가리켜 옛 諫臣, 즉 ‘임금의 잘못을 직언으로 간하는 신하’의 풍모가 있다고 호평한 바 있다.⁶⁰⁾ 군자의 품성은 군자가 알아보는 예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의 교유시에는 송강의 퇴계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의 정이 잘 배어 있다 하겠다.

이렇듯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에 있어서도 송강은 상대와의 긴밀한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절실한 감정을 펴 내는 면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와 기질이나 정서 면에서 공감대가 큰 문인들과의 교유 및 교유시에는, 서로 간에 쌓아온 남다른 교분과 두터운 情誼가 행간에 절절히 배어 있다. 송강이

59) 柳成龍, 『雜記』, 『雲岩雜錄』; 李睟光, 『東詩條』, 『芝峯類說』과 같은 문헌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0) 又退溪稿中有記 鄭某有古諫臣風云云: 『年譜』, 『松江別集』卷2

교유시를 남긴 문인들은 여기에서 거론한 인물들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의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성과 기질,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간 友人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인간미를 위의 문인들과의 교유 시편들에서 다채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하겠다.

6. 맺음말

송강이 남긴 한시 가운데 교유시는 전체 작품수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층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송강의 교유시편들은 크게 스승들과의 교유와 감화를 담고 있는 작품들, 창평의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들, 정치무대 동반자들과 쌓아간 유대와 정의를 주고받은 작품들,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 나눈 우의와 정감이 투영된 작품들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송강이라는 우리 문학사를 빛낸 사대부 문인의 성장 과정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들과의 교유 내용이 담긴 시편들에는, 그들과의 각별한 인연과 감화가 연연한 존숭의 정과 함께 여실히 배어 있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적 풍격과 정조 또한 은은히 투영되어 있다. 송강의 학문과 문학은 그의 타고난 자질 탓도 있었겠지만, 당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을 스승으로 섬긴 풍요로운 수학과 교유의 기반 위에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열매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평의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편들에는, 식영정·서하당으로 대표되는 그곳 누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과의 교분과 인간미 넘치는 유대감이 애뜻하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문학이 비롯된 터전이자 귀속처이기도 한 의식의 세계가 노래되고 있다. 송강의 문학은 특히 창평에 깃을 드리우고 지내던 시절에 더욱 비옥해지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편들에는 송강 평생의 정신과 정서가 깃든 마음의 고향인 사실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 나아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며 현실의 풍파를 헤쳐나간 이들과의 교유시편들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며 마음을 터놓고 사귀어 이들 사이의 정신적 유대감이 행간에 잘 배어 있으며, 평생의 지기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다른 정의가 두드러진다. 품성이나 기질 면에서 원만하기보다는 강직하고 거침이 없는 송강으로서는, 평생의 지기이자 정치무대 동반자인 그들이 있었기에,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탄치 않은 벼슬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큰 위안을 얻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 교유한 시편들에는, 나이의 위 아래를 떠나 특히 자신과 기질이나 정서 면에서 공감대가 큰 인물들과 쌓아온 남다른 교분과 두터운 정의가 잘 나타나 있으며, 상대와의 긴밀한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절실한 감정을 퍼내는 면이 두드러진다. 송강의 학문적 식견과 문학적 자질은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도 보다 깊고 넓게 다져졌다고 하겠는데, 때로는 감각적이고 때로는 호방·활달하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간절한 정감의 세계를 노래한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편들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간 사대부 문인이자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다.

송강의 한시 가운데 교유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사실과 작품의 특징적 성격에 대해, “그의 생활폭이 그만큼 넓고 다양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시의 소재가 되어 많은 교유시를 낳았으니, 그의 시가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요 바로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되는 것이다.”·“송강의 교유시는 바로 그의 전 생애가 반영되어 나타난 생활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⁶¹⁾라는 논의는 주목을 요한다. 송강의 교유시편 대부분이 그가 사회생활을 하며 인연을

61) 최태호, 앞의 『松江文學論考』, 61~72쪽.

맺은 인물들과의 교분과 정의를 다양한 일상사적 정서를 통해 詩化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송강이 헤쳐나간 삶의 역정과 생애적 궤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이는 송강의 개성에 결부된 인물됨됨이와 시적 지향의식에 말미암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 송강의 교유시편들에는 그의 품성과 기질에 바탕을 둔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들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우선 교유시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매사 적극적인 품성과 다정다감한 기질의 소유자였음을 잘 말해주며, 이러한 인물됨됨이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적인 풍모가 또한 역으로 것처럼 많은 교유시편들을 창작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교유시편들 대부분에는 그와 각별한 인연과 교분을 쌓은 이들에 대한 감정적 형상들이 절절히 배어 있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경험적 진실성에서 우러나는 표현의 긴절성과 의미의 곡진성을 언어로써 형상화하려는 그의 시적 지향의식에 말미암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송강의 교유시편들은 한 개인이 헤쳐나간 삶의 역정과 생애적 궤적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시면서도, 이와 같은 개성에 결부된 인물됨됨이와 시적 지향의식으로 말미암아 읽는 이에게 보편적 공감의 세계를 열로 놓음으로써, 더욱 절실한 느낌을 갖게 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송강의 품성은 원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대체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그와 뜻이 맞거나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들과는 평생을 두고 변치 않은 친분을 유지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송강의 교유와 처세의 이면에는 당쟁이라는 당대 사회상황이 긴밀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당파에 의한 정치적 이념이나 행동 노선에 따라 각기 교분을 달리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송강이라는 인물의 인물됨됨이와 그가 지향하는 가치의식에서 비롯되는 행동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송강은 심성이 맑고 강직하며 의기넘치는 인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성격이 편벽되고 화합하지 못하며 남을 잘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⁶²⁾

그런 면에서 볼 때, 송강의 교유관계에도 나름의 한계는 있다. 그가 교유한 인물 개개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한 이들이라는 사실과, 거의가 호남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한 마디로 당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정치상황과 사회현실이 긴밀히 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교유한 이들 대부분이 당대 정치적 판도에 따라 진퇴를 함께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면적 사실도 간과하기 어려운 바지만, 송강이 교유한 인물들 대부분이 나라 전체를 통해 인품과 학덕, 식견과 능력, 시문이나 예술적 자질 등에 있어서 공인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송강의 한시 작품들은 그의 국문시가 작품들의 경우에서처럼 다채로운 성향을 띠고 있다. 그의 시세계를 작품의 제재적 특성과 주제적 양상에 따라 크게 일상의 감회, 연군의 정, 풍류의 흥취를 형상화한 세 부류로 나누고 할 때⁶³⁾, 그의 교유시편들은 크게 보아 ‘일상의 감회’를 노래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송강 시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연군의 정’이나 ‘풍류의 흥취’를 노래한 시편들과는 적잖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건 대부분 인정에 곡진하다는 특성만큼은 공통적으로 배어 있다는 사실과,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이자 詩才가 돋보이는 시인이요 감성이 풍부한 풍류인이기도 했던 그의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의 교유시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62) 이러한 평들에 대해서는 『松江別集』 卷2·3의 「年譜」 기록들을 참조.

6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박영주, 「송강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5집(한국시가학회, 1999)을 참조.

참고문헌

■ 자료

- 奇大升, 『高峯集』
金成遠, 『棲霞堂遺稿』
白光勳, 『玉峯集』
宋 純, 『企村集』
梁應鼎, 『松川集』
柳成龍, 『雲岩雜錄』
李 珥, 『栗谷全書』
李晬光, 『芝峯類說』
林億齡, 『石川集』
鄭 澈, 『松江全集』(原集續集別集拾遺)
崔慶昌, 『孤竹集』
洪萬宗, 『詩評補遺』

■ 저서 및 논문

- 김갑기, 『松江 鄭澈 研究』, 이우출판사, 1985.
김진욱,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박영주, 「西浦가 송강가사를 ‘我東之離騷’라고 한 것에 대하여」, 『泮橋語文研究』
창간호, 반교어문학회, 1988.
——,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징」, 『韓國詩歌研究』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 『송강 정철 평전』, 중앙M&B, 1999.
박준규,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古詩歌研究』2·3합집, 한국고시기문학회,
1995.
유예근, 「松江 鄭澈 文學 研究」,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이은봉, 「松江 文學의 傳記의 背景 研究」, 『松江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 研究』, 민문고, 1989.
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A Study on Friendship Poetry of *Song Gang*

Park, Young-ju

Jeong Cheol (pen name : Song Gang, 1536~1593) is regarded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His works include four pieces of Gasa which is viewed as having the finest command of Korean in literature, more than 80 pieces of Sijo which is no less than Gasa in terms of literary merits and more than 700 pieces of Chinese poem which revealed his unique understanding of the images of life, society and nature.

This study examined his Chinese poems that have received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his Korean poet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ems that he exchanged with renowned literary men and scholars in his time. Friendship poetry in Song Gangs prime time ha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in that they allow us to look into the historical and literary circumstances of that time.

Song Gangs friendship poetry that he exchanged with prominent literary men and scholars in his time let us explore his relationships with his teachers who tremendously influenced his growing-up. The poems also imply his affection for friends with whom he associated with his heart open as well as acquaintance and honor with those whom he shared political lines with. Song Gangs friendship poetry reveals not only his inborn personality but also values and ideology that he lived for throughout his life. This study has its implications in that it brought to light the characteristic attributes of Song Gangs

literature by analyzing and examining his various works.

Keywords : Chinese poem, friendship poetry, relationships, affection, personality, ideology

K C I